한국고전연구 25집/한국고전연구학회/2012/37-64쪽

결혼 이주 여성의 주체적 삶을 위한 설화 전승의 의의

김대숙*

<차 례>

1. 머리말
2. 이주 여성과 구비설화 전승
  2.1. 아내
  2.2. 며느리
  2.3. 어머니
3. 설화 전승의 의의와 전망

〈국문초록〉

결혼 이주 여성의 역사가 20여년을 훌쩍 넘은 이 시점에 더 이상 그들을 앳된 새댁의 위치에 고정시키고 언어, 음식, 시집살이 등의 기본 교육에 매어놓을 것이 아니라, 가정의 중심이고 가족의 기반인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비 전승을 통한 한국인의 가족관계를 익히도록 민담의 세계를 제시한다. 여성이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었을 때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세울 수 있고, 전통사회의 여성들이 어떻게 일하고 모아서 생계와 치산에 힘써 노력하였는지를 알게 하는 일이 결과적으로 이주 여성들과 그 가족의 행복을 도와주는 일이다. 한국어에 익숙한 먼저 온 이주 여성에게 설화를 들려주고 그들은 나중에 온 이주여성들에게 그리고 그들 자녀들에게 설화를 들려주면서 한국의 구전은 계승되어 갈 것이다.

주제어 결혼 이주 여성, 아내, 며느리, 어머니, 일, 경제력

* 평택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www.kci.go.kr

1. 머리말

결혼은 본래부터 이주를 전제로 한다. 여성 혹은 남성, 아니 대부분 여성이. 결혼의 역사는 이주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의 전통사회에서 결혼은 “시집 가고”, “장가 드는” 일이었다. 과거에는 국적을 달리하는 남녀의 결혼은 대부분 평범한 결혼에서는 예외적인 사례였고 20세기 초의 결혼 이주 여성은 덕혜옹주나 이방자 여사로 상징되는 특수하고 불행한 경우였다가 한국 여성과 미국 남성과의 결합이 “국제결혼” 이라는 명칭을 달면서 이같은 혼인은 여성 본인에게나 그 가족에게 대단히 수치스럽고 감추어야만 되는 사건으로 간주되었다. 20세기 후반에 와서 한국사회는 산업화의 진행으로 젊은이들이 시골을 떠나 도시로 옮겨가고 양성 가운데 특히 여성이 값싸고 험한 일자리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조건으로 인해 남성보다 더 많이 농촌을 떠나면서 지방에 남은 남자들이 나이를 먹도록 배우자를 구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 해결의 일환으로 외국의 여성을 찾아 적극적 혼인으로 아내를 구하게 되면서 한국사회에는 결혼을 통하여 이주해 온 여성들이 점차로 늘어나게 된다. 이른바 “결혼 이주 여성” 들이다.

이 같은 형태의 결혼 이주 여성의 역사는 대체로 1980년대부터 서서히 시작되어 현재까지 30여년의 역사를 지니게 되었다. 결혼 이주 여성에 관심을 가지고 필자가 발견한 첫 번째 문제는 이주여성이라면 제일 먼저 재중 동포를 떠올렸으나 그 이전,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먼저 결혼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여성들이 일본 여성들이라는 사실이었다. 특정 종교를 배경으로 국제 결혼을 통해 한국에 건너 온 일본 여성 일 세대는 이제 육십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르고 있다. 그 이후로 농촌 총각들이 해외로 나가 신부를 골라 결혼하고 먼저 귀국한 후, 신부를 데려오는 형태의 국제

www.kci.go.kr

결혼이 본격화되면서 재중 동포, 중국,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등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각국의 여성들이 한국으로 이주해 왔고 지금 현재에도 이주는 계속되고 있다. 90년대를 지나면서 차츰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거기다가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근래에는 도시의 재혼남들이 외국의 처녀들을 아내로 맞아오는 추세가 늘고 있다. 그 결과 최근에는 시골보다 서울, 경기권의 결혼 이주 여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남녀 간 나이 차이도 더 많이 벌어져 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이 증가하고 이들의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이 여성들과 관련된 제도, 정책, 시설,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고 현재의 한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로 자리잡고 있다.

평소 연구의 중심에 여성을 세우고 문학을 연구해온 필자는 자연스럽게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앞서 "결혼 이주 여성의 자기체험서사에 관한 연구"[1] 라는 논문을 집필한 바 있다. 필자가 이주 여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니 그간의 이들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사회학, 사회복지학, 여성학 등의 사회과학 분야에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문학의 연구에서 오히려 이들의 내면에 더 깊이 있게 접근 할 수 있고 이들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면서, 이 여성들이 그들의 가족 즉 한국 사람들과의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문학을 하는 사람의 역할이 중요함을 깨닫고 우선 먼저 이들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우려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앞서 사회과학 분야의

1) 필자, 『국어국문학』, 제149호, 2008. 한국기독여성총연합회(YWCA)에서 2007년 10월 9일 한글날에 결혼 이주 여성들을 위한 백일장을 개최하였다. 서울, 전주, 대전, 대구, 안산 지회에서 백일장을 열어 당선작을 발표하고 추후로 당선작을 모두 모아 서울에서 전체 작품 가운데 당선작을 추려서 그 가운데 전국 백일장 수상 작품을 선정하였다. 전체 작품 수는 모두 97편이고 그 가운데 15편의 작품이 대상부터 입선까지의 상을 받았다. 백일장에 주어 진 제목은 「나의 남편」, 「한국살이 에피소드」, 「나의 어린 시절」, 「나의 어머니」 들이다. 위의 논문은 이 백일장에 출품된 97편의 작품을 바탕으로 쓰여졌다.

www.kci.go.kr

연구는 주로 이주 여성과 관련된 통계적 수치를 파악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하여 다음으로는 이들과 만나 질문하고, 대화를 통해 이주 여성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처방을 내리고 제도를 마련하는 방식이었다. 실제적인 면에서 이주 여성을 돕고 나아가 이들 가족과 한국인의 삶을 개선해 나아가는 훌륭한 노력들이었음을 치하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인문학도로서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주의 역사가 상당히 진행된 이 시점에 그녀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절실한 소리를 듣고 문제를 진단하고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 싶다. 이 같은 시각에서 본다면 이제는 이주 여성들을 어린 아내, 새댁, 며느리 등의 위치에 놓고 피해자, 그리고 수혜자의 입장에서만 그녀들을 볼 것이 아니라 남편의 내조자, 한 집안의 중심, 어머니의 위치에 그녀들을 세우고 가정의 중심으로서 그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가를 그들에게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아직도 계속해서 나이 어린 여성들이 푸른 꿈을 안고 한국으로 옮겨오는 이주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그들을 위한 대책은 지금처럼 계속되고 신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어머니로서의 그녀의 위치를 인식하고 그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데 까지 그들을 일깨우고 도와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녀들의 노력과 희생이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확립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가족의 중심이 되고 진정한 한국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의 다문화 센터에서 이주 여성들과 접촉하면서 여러 이주 여성들, 특히 베트남에서 온 여성을 중심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사례들을 볼 수 있었다. 친정과 시댁 사이에서 처음 한국으로 오던 때의 기대와는 다른 환경에서 고통받는 문제를 접하였다. 그래서 한국의 가정에서 여성은 특히 어떤 경제적인 역할을 감당하였는지

www.kci.go.kr

를 구비 설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2] 앞글을 쓰면서 이제는 이주의 역사가 근 20년이 넘으면서 이주 여성들에게 갓 시집 온 새댁이고 며느리인 역할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한 집안의 중심이며 아이들의 어머니인 막중한 책임을 주지시켜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전통사회에서나 현대사회에서나 여성의 경제적 능력과 역할이 여성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일으켜 세우고 한 가정을 번영하게 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구비전승을 통하여 이주 여성들에게 일깨워 주어야 한다는 데 이르게 되었다. 이미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문학을 통한 이주 여성들의 교육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글들이 쓰여졌다.[3] 그러한 글들을 읽으면서 구비설화를 전공하는 필자로서는 좀 더 정밀하게 설화 유형에 맞춘 활용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 글을 시작하게 되었다. 민담의 세계 안에서의 전통사회의 여성들과 같은 삶을, 현대 한국의 여성들은 살고 있지 않다는 지적은 지극히 보수적인 남성중심적인 시각이라고 사료된다. 현대를 사는 한국 여성들에게는 직장과 가정이라는 두 개의 일터가 주어진 셈이다. 여성은 직장을 가지고 돈을 벌어 와도 가사 일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직장과 가사라는 이중고를 짊어진 체, 자녀 교육이라는 무거운 경쟁까지를 떠맡고 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한국의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지혜롭게 처리해 왔는지를 이주 여성들이 빨리 알수록 좀 더 다행할 것이다.

---

2) 필자, 「다문화 가정과 설화교육」, 『논문집』 제25집, 평택대학교, 2011.

3) 대표적인 논문을 먼저 적는다.
오정미, 「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설화의 활용 - 설화 「선녀와 나무꾼」과 설화 「우렁각시」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27집, 2008.

www.kci.go.kr

2. 이주 여성과 구비설화 전승

외지의 여성이 한국으로 시집와서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고 자신과 가족간의 유대를 통해 다같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외국 여성들에게 한국인의 세계인식과 인간관, 특히 가족관계를 빠르고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설화를 활용하고자 함이 이 글의 취지이다. 그래서 가정 내의 위치와 역할에 따라 가장 적합한 설화를 이주 여성들에게 들려주려 하는데 어떤 위치의 여성에게 어떤 설화를 들려주면 좋을 것인가 하는 선별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다. 그래서 필자가 가진 주관적 안목도 중요하겠지만 이와 관련된 그간의 연구 성과를 활용하기로 한다. 먼저 “결혼이주 여성의 자기체험서사에 관한 연구”(앞으로는 “자기체험서사”로 줄여서 부른다)는 이주 여성들이 자신이 한국에 와서 맞닥뜨린 현실과 애로사항을 가장 진솔하게 기술하고 있고, 문제점을 극복해 나아간 과정을 곡진하게 토로하고 있기에 가장 정확한 내면의 소리로 반추한다. 그러기에 논의의 진행에 자기체험서사와 설화를 병치할 것이다. 더불어 “여성의 삶과 설화문학”[4], “한국구비문학대계 여성제보자 구연설화에 관한 통계적 연구”[5], “다문화가정과 설화교육”[6] 등의 글은 한국 여성의 삶과 설화를 가장 가까운 거리로 연결시키고 있기에 이주여성을 위한 설화를 선별하는 자료로 요긴하게 쓰일 수 있겠다.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이주 여성에게 한국의 가족문화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화를 들려주려 하는데 무작위로 하기보다는 이주 여성이 가정 안에서 감당하게 되는 다양한 역할에 맞추어 정리하도록 하겠다.

4) 필자, 『한국인의 삶과 구비문학』, 서대석 외, 집문당, 2002.
5) 필자, 『한국고전연구』 제9집, 2002.
6) 필자, 『논문집』 제25집, 2011.

www.kci.go.kr

2.1. 아내

이주여성은 한국으로, 한국 남자에게 시집왔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역시 아내이다. 갓 시집와 아내의 위치에 놓여진 이주 여성들은 오랫동안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결혼한 여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남편과 시부모, 가족과 친지들이 자신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무엇을 어떻게 기대하고 있는지 먼저 알아야 하겠다.

> “ 옛날 가난한 집에 막내아들이 복을 타러 집을 떠났다. 길을 가다 과부를 만나니 어쩌면 남편을 얻을까 물어 보아 주기를 청했다. 강에 이르니 용이 못된 이무기가 물을 건너 주며 왜 득천의 기회를 놓치는지 물었다. 용이 입으로 안개를 뿜어 만든 무지개 다리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 옥황상제를 만나 복을 청하니 편하면 일찍 죽는다고 답했다. 과댁은 여의주를 가진 남자를 만나야 해로하고, 이무기는 여의주를 두 개나 가지고 욕심을 부려 승천을 못한다는 것이었다. 막내는 돌아오며 이무기에게서 여의주를 얻고, 과댁에게 여의주를 전해서 여자와 여의주를 얻어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 구복여행 7)

전 세계에 널리 퍼져있는 “복 타러 가는 여행” 이야기이다. 한 남자에게 아내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복>으로 집약된다. 여의주, 황금 등은 물질이고 먹고 살아갈 방책이다. 인간에게 기본적인 필요는 밥과 아내이다. 밥을 먹어야 목숨을 이어가고 아내가 있어야 생명을 연장한다. 이주여성은 남편에게 이런 존재이다. 남편이 먼 이국 땅까지 가서 많은 돈을 들이고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여성를 데리고 온 것은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고 그 결과 자식을 얻기 위함이다. 그렇다고 남자가 인

7) 서대석 편, 『구비문학』 해냄, 1997, 103-107면.

www.kci.go.kr

간이 가진 기본적인 욕망 해소만을 위해 아내를 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상으로, 험난한 인생을 같이 헤쳐 갈 동지이며 위로자이며 어머니를 대신해 줄 고향과도 같은 동반자를 구한다.

> "혼자 사는 가난한 총각이 밭을 갈며 '이 밭을 갈아 누구랑 먹고 살지?' 하자 어디선가 '나랑 살지' 하는 소리가 들렸다. 집에 가면 밥상이 차려있어 몰래 엿보니 우렁이 속에서 나온 각시였다. 사흘만 기다리라는 각시의 말을 안 듣고 두 사람이 같이 살았다. 각시의 인물을 탐낸 원님에게 각시를 빼앗겼다. 각시는 좋은 옷, 맛난 음식에도 웃지를 않아 원님을 각시를 웃게 하려고 거지 잔치를 열었다. 각시를 찾으러 온 신랑이 내기에 이겨 원님을 물리치고 각시는 신랑에게 돌아갔다" 우렁각시[8]

각시가 살던 환경과 원님의 집은 비교가 안 되는 조건이다. 그렇게 원님에게 와 호강을 누려도 오직 신랑 생각에 웃음을 잃어버린 각시는 목숨을 건 신랑의 노력으로 집으로 돌아온다. 우렁각시 설화는 남녀의 순수한 애정을 그린 구비전승 가운데 가장 충실한 애정담이고 [9] 그래서 이주 여성과 설화를 연결한 선행 연구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졌다.[10] 각시와 신랑은 뜻밖에 만났으나 부부로 맺어져 살게 된 이후로 애틋하게 사랑하고 서로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지 않았다. 각시에게는 아무리 좋은 호의호식

8) 앞 책, 128-135면.

9) 필자, 「구비전승 애정담의 행방」, 『한국설화문학과 여성』, 월인, 2002. 179, 181면.

10) 오정미 ; 앞의 논문에서 이주 여성의 문제를 부부관계에 초점을 두고 「선녀와 나무꾼」, 「우렁각시」를 텍스트로 선정하였다. 이 두 설화가 이주 여성 부부의 모습과 닮아있고, 이주 여성은 자신의 모습을 설화 속 주인공을 통해 타자화 할 수 있다고 보았다 185-186면. 필자와 조금 다른 차이는 위의 논문에서는 이주 여성 부부에게 서로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유용한 측면이 있어서 「우렁각시」의 '비극형'을 자료로 택하고 있다. 187면.

www.kci.go.kr

도 자기를 두고 밖을 못나가는 신랑의 알뜰한 정 보다는 못했던 것이다. 그러기에 각별히 의가 좋은 부부는 이 생을 떠나 저 생까지도 함께 갈 정도로까지 사랑하게 된다.

> “바닷가에서 술을 이고 다니며 팔던 여인이 남편이 바다에 나갔다가 돌풍을 만나 배가 전복되어 거기서 죽었다는 기별을 들었다. 며칠간을 울지도 않고 전처럼 장사를 다니던 여자는 약간의 돈이 마련되자 무당과 사공과 작은 낚시배를 빌어서 바다로 나아가 남편이 빠져 죽은 곳에 이르자 옆에서 말릴 틈도 없이 물 속에 뛰어 들었다. 며칠 후 바닷가에 시체가 밀려왔는데 그것은 죽은 남편의 목을 끌어안은 아낙의 주검이었다” 「토영 열녀」[11]

> “지금은 남편을 많이 사랑합니다. 남편 힘들 때면 맨날 담배 배워 술도 마신다. 미치겠다. 그런데 남편을 많이많이 사랑합니다. 어느 날 싸우면 나는 한시간 울었어요. 그런데 한 시간 지났어요. 나는 남편한테 전화해요. 당신 어디있어? 얼른와라 빨리와라 정말 남편을 사랑하나봐요. 「사랑하는 남편」[12]

앞의 이야기는 구비설화 「토영 열녀」이고 뒤의 글은 필리핀에서 시집온 여성의 「사랑하는 남편」이라는 글의 일부분이다. 세상도 많이 변했고 부부는 싸우는 부부가 더 많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부부간은 처음 만나서는 젊음이 가진 열정으로 그리고 나이 들면서는 미운 정 고운 정으로 얽힌 둘도 없는 인생의 동반자로 서로에게 의지가 된다. 그래서 이주 여성에게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옛말도 들려주면 더욱 좋겠다. 사랑도 노력이고 훈련이다. 낯선 땅에 시집 와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치는 여성에

1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9-1, 27면.

12) 필자, 2008, 264면. 5-3 제네린다카힌도(필리핀) ; 이주 여성의 글은 맞춤법, 띄어쓰기 등 틀린 부분이 많다. 원고 그대로 옮긴다.

www.kci.go.kr

게 자신은 남편에게 어떤 존재이고, 남편을 알뜰히 사랑하면 스스로도 행복해 진다고 가르쳐 주어야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들이다.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무책임한 남편 때문에 얼마나 불행해지는 지는 여러 사례가 보여 주고 있다. 많은 수의 여성들이 무능한 남편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고 생계를 위해 직접 생활 전선에 뛰어들기도 한다. 이럴 때 이주 여성들을 더욱 괴롭히는 것은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서 젊은 여성을 사 왔다는 주위의 수군거림이다. 노동의 고통과 주변의 질시로 이중고를 겪는 이들에게 한 가정의 주부가 떠맡는 역할을 알게 하고 그들에게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아가는 주체적 의지를 지니도록 해주어야 하겠다.

> "상주의 김생이 일찍이 부모를 여위고 남의 집 머슴을 살아 26세에 비로소 장가를 들었다. 첫날밤을 지낸 다음날 아내의 제안으로 십년을 기한하고 날마다 죽 한그릇으로 배를 채우고 각 방에서 짚신을 삼고 길쌈을 하여 재산을 모으기로 하였다. 다음 해에는 보리를 그 다음 해는 담배를 심어 수십냥 돈을 모았다. 10년 후에 과연 도내의 갑부가 되었다. 부부가 과년하여 만난데다가 십년이 경과하고 보니 자식을 얻을 희망이 없었다. 아내의 제안으로 같은 성의 아들로 후사를 삼으니 곧 상산(商産) 김씨이다. 그 후예가 크게 번창하여 벼슬이 대를 이었다."「부부각방」 13)

한국의 전통사회에서 여성은 치산의 주요한 역할을 감당하였다. 농촌에서도 농사를 짓고 들일을 보는 많은 부분이 부녀자의 몫이었다. 현재에도 여성들의 경제적 능력은 매우 중요한 자질이 되고 있다. 이주 여성들의 글에서 처음 시집와서 시부모가 집 밖으로 못나가게 하는 어려움을 흔히 토로한다. 이런 환경 보다는 여성이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버는 편이

13) 서대석 1997 226-228면.; 원문『청구야담』권1 "영산업부부이방"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고, 번역문은 이우성・임형택,『이조한문단편집』상, 일조각, 1973, 18-20면.

www.kci.go.kr

가정 내의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데도 훨씬 좋은 기회가 됨을 알게 하고 나아가서 무엇보다도 자식을 위해서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는 편이 훨씬 행복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하겠다. 혹시 자신이 태어난 나라보다 조금 더 형편이 좋은 곳으로 시집오겠다고 결심하면서 호강을 하는 쪽으로만 목표를 삼았다면, 오직 남편에게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결혼 생활은 길게 보면 여성 쪽에 훨씬 불리한 조건이라는 상황을 되도록 빨리 이해하는 편이 이주 여성들 자신을 위해서 더욱 좋은 길이 되겠다. 더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근래의 이주 여성의 결혼 상대가 도시의 재혼남이 많아지면서 남녀 간의 나이 차이가 10세 이상으로 벌어지고 있다. 그만큼 남자 쪽이 벌이를 놓게되는 해수가 빨라질 것이다. 아이는 부친에 비해 나이가 많이 늦되는 조건에서 여성 쪽이 경제적 능력을 갖추면 그만치 자신을 위해서나 가정을 위해서나 다행한 일이다.

2.2. 며느리

결혼은 남녀가 만나 서방 되고 각시 되는 일이다. 서방은 각시만 생각하면 되지만 각시는 웬걸! 막상 결혼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고 나면 신랑보다 훨씬 더 중대한 아니 무거운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 ≪시어머니≫이다. 아내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 세 사람의 삼각관계는 동서고금의 어떤 철학자도 해결하지 못한 관계임을 이미 먼저 말한 바 있다[14]. 고부간의 문제는 동서양이 차이가 없고 과거와 현재가 그대로이니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고 가는 난제이나 특히 이주 여성에게는 이중 삼중의 어려움이 내재한다. 요즈음은 한류의 여파로 동남아에서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면서 이주 여성들은 한국으로 시집오기 전에 이미 한국으로 시집 갈 계획을 가지

14) 필자 「'나무꾼과 선녀' 설화의 민담적 성격과 주제에 관한 연구」, 341-342면, 『국어국문학』 137, 국어국문학회.

www.kci.go.kr

면서부터 벌써 시어머니의 존재를 두려워하고 고부 관계를 걱정한다.

> “중국에는 한국 드라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한국 드라마 속에 나오는 시어머니들은 엄격하고 무섭게 하며 많이 울게 됐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니 난 우리 시어머님도 드라마 속에 나오는 모습이면 어떻하나 걱정은 됐고 나뿐이 아니라 내주변에 있는 친구와 가족들이 많이 걱정을 됐습니다” <2-9> 루통퀴이 중국 / 3년[15]

시어머니가 이국에서 시집 온 며느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남편과의 관계에서 완고한 남존여비 사상을 보이고 경제권을 장악하며 아이들을 기르는 문제에 간섭하는 일 등이다.[16] 이같이 어려운 상대를 만나게 된 이주 여성이 자신 앞에 놓여 진 중차대한 난관을 무사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잘 알고 그 입장을 이해하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좋겠다. 이 세상 모든 인간관계가 대부분 서로의 입장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나 고부간의 관계만큼 입장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극명한 경우는 둘 다시없을 것이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은 어머니가 되고 다른 어떤 사람이 시어머니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어머니도 되고 시어머니도 되는데 어느 입장에 놓였는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입장이 되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기대하고 있는지를 안다면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좀 더 수월하게 해결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 “옛날 어느 양반집에서 며느리를 고르는데 며느리를 아주 똑똑하고 당찬 사람으로 구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집에 와서 쌀 한 말 가지

15) 필자 2008, 275면.
16) 필자 2008, 275면.

www.kci.go.kr

고 세 식구가 석 달을 먹고 살면 며느리로 삼겠다고 했다. 그러나 오는 처녀마다 한 달을 못 넘겼다. 한 농사꾼에게 과년한 딸이 하나 있는데 자기가 가겠다고 하더니 첫날부터 다른 처녀들처럼 아껴먹는 것이 아니고 쌀 한되를 퍼다 밥을 푸지게 지어 놓고 저고 먹고 종도 먹이더니 한 사흘이 지나자 종들을 데리고 나가 일을 슬슬 시켰다. 여자 둘은 나물을 캐다 팔구 남자는 나무를 해다 팔구 그렇게 석 달을 하니 먹는 것 보다 쌓이는 것이 더 많았다. 이렇게 해서 그 처녀는 양반집 며느리가 되었고 그 뒤로도 자신도 억척같이 일하고 제 남편도 일을 고되게 시켜서 아주 듬직한 사내로 만들어 놓았다" 「며느리감 고르기」 17)

서두에서 아들은 오대 독자 금지옥엽이다. 어머니에게는 어느 아들도 모두 하나같이 금지옥엽이다. 그런 만큼 내 아들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 나가려면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생활력 있는 내조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생을 먼저 산 부모는 알고 있다. 그래서 며느리는 자신들이 사는 처지 보다는 가세가 조금 못 미치는 집안에서 데려 오더라도 본인은 일 잘하고 집안 잘 꾸려 나갈 위인을 희망하는 것이다. 이주 여성이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문화가 다른 며느리라 할지라도 시어머니의 기대는 여전히 크다. 그리고 시부모를 봉양하는 일이 결혼 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빨리 적극적으로 인식하는 편이 좋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높은 연령층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가 효행담이다.18) 그만치 자식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는 사실을 표시한다. 헌데 효행은 지극히 실질적인 것으로 인간 삶의 먹고 사는 문제들이다. 그래서 효행설화는 일찍부터 철저하게 생계형이다.

17) 서정오,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옛이야기 백가지』, 1996, 현암사, 269-271면.
18) 필자, 「구비 효행설화의 거시적 조망」, 『구비문학연구』 제3집, 한국구비문학회, 177면.

www.kci.go.kr

"손순은 모량리 사람으로 아내와 함께 남의 집 품팔이로 쌀을 얻어 늙은 어머니를 봉양했다. 손순에게 어린 아들이 하나 있어 노상 할머니의 밥을 빼앗아 먹었다. 손순이 아내에게 자식은 또 얻을 수 있으나 모친은 다시 얻지 못하니 아이를 묻으러 가자고 했다. 아이를 업고 들로 나가 흙을 파니 땅 속에서 돌종이 나왔는데 나무에 걸고 치니 은은한 소리가 듣기 좋았다. 아내가 아이의 복으로 종을 얻었으니 묻지 말자고 해 그냥 돌아왔다. 종소리가 대궐에까지 들려 사연을 알게 된 흥덕왕이 큰 상을 내렸다. " 「손순매아」[19]

부모를 섬기는 효행이 지극히 일상적인 일이며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의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중요한 시점에 중대한 판단을 아내, 며느리가 내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자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자식이다. 그런데 부모를 위해서 자식도 포기할 수 있고, 그런 마음가짐은 큰 보상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이주 여성이 아니라도 처음 듣는 누구에게라도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 오지만 이야기는 엄연히 문학과 역사 등 다각도의 방향에서 청자를 압박한다.

"남편은 돈을 벌러 가고 고부간만 남은 가난한 집에서 며느리가 눈 먼 시어머니를 지극히 봉양하였다. 며느리가 끓여 주는 국이 하도 입에 달아 건더기를 하나 건져 자리 밑에 넣어 두었다가 아들이 돌아왔기에 꺼내 보여주니 지렁이였다. 아들이 놀라 '지렁이' 하는 소리에 노모가 눈을 떴다. 남편이 아내에게 큰 절을 했다." 「지렁이 반찬」[20]

집안 형편은 때거리가 없을 정도로 가난하고 시모는 앞을 못 보고- 참

19) 일연, 『삼국유사』 하, 이동환 역, 삼중당, 1995, 184-186면.

2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별책 부록 『한국설화유형분류집』 413-2 정성이 지극해서 부모 병 고친 효자(천년두골에 쌍용수, 지렁이 반찬).

www.kci.go.kr

어려운 시집살이이다. 이주 여성이 당면한 어려움도 색깔만 다를 뿐 그 내막은 비슷하다는 사실을 <자기 체험 서사>가 말해 주고 있다. 삶의 애환이 뭐 그리 다를 것인가. 새로이 안착한 가정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가장 어려운 상대인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섬긴다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대상인 남편으로부터 지극한 감사를 받게 될 것이다. 「집안이 화목한 비결」 이야기는 처음 시집 온 임시에는 우선 배워야 하고 적응해 나아가야 하는 어려운 처지이지만 차츰 집안의 흥망을 책임질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 훗날에는 가족의 중심이 되고 시어머니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다.

"옛날에 성미가 고약한 시엄씨가 있어 아들 딱 하나 있는 것을 며느리를 세 번이나 갈아 치웠다. 하나는 방구 뀌었다고, 하나는 밥상 엎질렀다고, 하나는 말버릇 나쁘다고 소박을 주었다. 동네의 한 처녀가 다 말리는데도 작정하고 시집을 왔다. 처음 와서는 들들 볶아데고, 때리고 차도 "예, 예, 하며 지냈다" 시아버지까지도 걱정을 해도 웃으며 지냈다. 하루는 식구들이 다 나간 사이에 시어머니를 새끼줄로 꽁꽁 묶어서 문고리에 매달아 놓고서 회초리로 사정없이 두들겨 팼다. 풀려난 시엄씨가 동네 방네 고함을 질러도 누구 하나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 저녁에 식구들 앞에서 대성통곡을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를 안았다. 며느리는 식구들 앞에서는 "네, 네" 하며 공손하게 굴었다. 다음날 식구들이 나가자 며느리는 또 시엄씨를 때렸다. 그 날도 역시 아무도 시엄씨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그 다음날 식구들이 다 나가자 시엄씨가 눈물을 흘리며 "오냐, 내가 다 잘못했다. 이제 다시는 안그럴테니 이제 그만해라" 하고 싹싹 빌자, 며느리도 매질 한 것을 눈물로 사죄하고 그 담부터는 극진히 효도하면서 살았다" 「시어머니 길들이기」 21)

21) 서정오, 1998, 279-282면.

www.kci.go.kr

무단히 세월은 흐르고 시어머니가 나이를 먹으면 젊은 며느리의 기운을 못 당한다.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지 않는가? 당장은 힘들어도 훗날에는 며느리가 주인이 되고 시부모는 며느리에게 의탁하게 된다. 그리고 곧 자신도 시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러니 도리를 따라 잘 살면 자신에게도 복이 돌아 올 것임을 가르쳐 주어야 하겠다. 그리고 혼자 된 시아버지도 더불어 살 방책을 구하고 내몰기 보다는 싸안고 가야하는 현실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 "하루는 장에 갔다 온 남편이 아내에게 전하기를 오늘 장에 갔더니 살찐 노인네를 데리고 와 파는데 돈을 아주 많이 쳐 주더라는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아내가 홀로 된 시아버지를 열심히 먹이고 깨끗이 입히며 잘 보살폈다. 며느리가 이렇게 잘하니 홀시아버지가 신이 나서 부부가 들에 나가면 손자도 업어주고 마당도 깨끗이 치우고, 집안일을 돌보았다. 이렇게 되니 하루는 남편이 아내에게 부친을 팔러 가자 하니 아내가 펄쩍 뛰면서 시아버지 없으면 집안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했다" 신랑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불효를 이용해 효도하게 하기」[22]

집안에서 자식과 부모의 관계, 즉 부모가 효성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문제는 가족 안에서의 역할과 기능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파악되는데 그 같은 관점을 섬세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432-1 불효를 이용해 효도하게 하기(부모를 살찌워 팔거나 죽이려고 한 이야기)이다. 이야기의 발단은 아들에게서 시작되지만 불효의 초점은 며느리에게 있다. 시어머니는 죽고 시부는 혼자되어 있는데 나이도 많고 세상사가 시들해서 집안일도 거들지 않고 무심하게 지낸다. 아들은 효심이 있으나 며느리는 이런

22) [대계] 분류표 432-1 불효를 이용해 효도하게 하기(부모를 살찌워 팔거나 죽이려한 이야기).

www.kci.go.kr

시부가 아주 못마땅해서 끼니도 입성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다. 그래서 아들이 걱정 끝에 묘안을 짜낸다. 시장에 다녀온 남편이 아내에게 잘 먹이고 입혀서 건강해 보이는 노인을 아들이 데리고 나와 팔고 있더라는 광경을 전하면서 자기 아버지를 살 찌워 팔자고 제안한다. 홀시아버지가 몸서리가 나게 싫던 참에 며느리는 선뜻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

그 날부터 며느리는 시부를 살찌우려고 밤, 고구마, 고기, 콩죽, 등등을 먹이고 옷에 고운 때가 묻을 만하면 갈아 입혀가면서 시부를 공양한다. 이렇게 며느리가 알뜰히 대접을 하니 시부의 태도 역시 자연스럽게 변화한다. 전과는 달리 마당도 쓸고, 아들과 며느리가 들에 나간 사이에 쇠죽도 끓이고 손자도 돌보아 주고 식전에 며느리보다 일찍 일어나서 부엌의 재도 쳐내어 준다. 이렇게 일 년이 흘러서 처음 아들이 약속했던 섣달 그믐날이 돌아와 아내에게 아버지를 팔자고 짐짓 마음을 떠보니 아내는 시아버지가 있어서 얼마나 편한지 모르는데 만일 시부가 없다면 생활이 너무 불편해져서 안 된다고 펄쩍 뛰며 반대한다.

물론 화자는 아들의 효심과 지혜를 칭찬하고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지만 결국 가족공동체라는 관점에 시각을 맞춘다면 가족 간의 역할과 기능이 관계 형성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노정하는 것이다. 며느리도 자식이고 실제 생활을 주관하고 있으니 며느리가 부모에게 잘하면 자연히 부모도 며느리를 잘 대하고 그러면 남편은 아내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그렇게 되면 며느리는 그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이게 된다. 이처럼 전통 사회 안에서 여성들의 위치는 미약하였으나 실제 가정사에서 차지하는 주부의 역할은 클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구비전승의 자료가 생생하게 노정하는 바이다.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하고 고부 관계를 잘 해결해 나아가면 부부 관계에도 좋고 자신의 입지도 공고히 할 수 있음을 이주 여성들이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해 주려는 것이다.

www.kci.go.kr

2.3. 어머니

여성에게 있어서 결혼에서 가장 큰 의미는 어머니가 되는 일이다. 현대 사회의 가족 관계에서는 수직적 관계 보다 수평적 관계가 큰 의미를 가지나 긴 세월을 두고 보면 역시 여성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는 자식-아들이다. 이주 여성들의 글에서도 아이를 낳고 어머니가 되면서 한 인격체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지게 되는 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 "여기 한국땅에 오는지 벌써 11년이 된다. …….. 집안일을 잘 할 수 없어서 미안하고 억울하고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 이렇게 부족하고 자랑할 수 있는 일도 없지만 저에게는 예쁜 아이들이 생겼다. 나의 점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들아-내가 슬플 때 괴로울 때 힘들었을 때 너를 생각하면 다시 일어설 수가 있구나……. 고맙다. 아들아" 「나의 한국살이」[23]

이주 여성들은 자신들의 소회를 피력한 많은 자료에서 한국으로 처음 시집와 어려운 시절에 한두 번 쯤은 가출을 생각해 보았다는 속내를 털어놓는다. 그녀들이 많은 갈등과 난관을 겪으며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혼란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그들이 진정으로 한국 사람이 되고 한국가정의 한 가족이 되어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게 되는 계기는 아이를 낳고 어머니가 되는 때이다.

> "한국 사랑하고 이 땅에서 아들도 태어나고 해서 더욱 한국을 좋아합니다"[24]

23) 필자, 2008. 264면, 5-4 팜금희(베트남).

24) 필자, 2008, 263면, 3-10 버리기나 나타리아(봉천 복지관).

www.kci.go.kr

동남아의 여성들이 초등학교에 비교되는 의무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중국 고사인 맹모삼천(孟母三遷)을 듣고 자랐는지는 미지수이다. 먼저 이들에게 한석봉과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흥미가 있을지 모르겠다. 얼마 전에 방영된 올레의 광고를 보여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다.

> "유당(柳堂)이라는 사람이 딸과 아들을 두었는데 아들을 가르칠 양이면 딸이 와서 몰래 배우곤했다. 그 딸이 홍씨 대가집으로 시집을 갔다. 아들을 하나 낳고 남편이 죽었다. 남편을 따라 죽으려다가 영신 앞에서 마을을 돌렸다. 자신이 죽으면 강보에 쌓인 아들을 누가 돌볼 것이며 남편의 삼년상을 누가 받들 것인가? 아들을 키우며 남편의 삼년상을 받들 적에 그 축문의 필적이 하도 좋아 친척들이 감탄하였다. 그 아들이 일곱 여덟살이 되자 어미가 스스로 가르치는데 조금만 잘못하면 회초리를 해 가지고 피가 나게 때리며 엄하게 가르치고는 자신은 다른 곳에 가서 몰래 울었다. 아들이 열서너 살 먹어서 모친 앞에서 글을 읽겠다 하니 어미가 나삼으로 얼굴을 가리고 들었다. 아들이 연유를 물으니 달래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네가 글을 읽으면 내 마음이 자연히 기뻐서 웃음이 나오면 네가 마음이 헤이해질까 봐서 그런다고 답했다. 아들이 자라서 판서를 지냈다. (자식은 안부모가 팔할은 정해져 있어. 아들을 가르치는데도 팔할을 점령해.)" 「유당(柳堂) 어머니의 엄한 교육」[25]

전통적으로 한국의 어머니들은 자식에게 끔찍이 지극했으며 각별한 애정의 표현은 주로 교육으로 표현되었다. 이야기의 세계에서 어머니는 자주 홀어머니로 묘사되는데 이는 남자들이 전쟁, 내란, 사회적 위험 등으로 먼저 죽는 경우가 많고 자녀 교육은 집안에서 모친의 의지에 의해 좌우되

25) [대계] 설화분류표 411-15, 자식 엄격하게 가르쳐 성공시킨 홀어머니.
5-1 113 유당(柳堂) 어머니의 엄한 교육.

www.kci.go.kr

기 때문이다. 홀어머니는 베를 짜고 벼를 찧으며 밤낮으로 일을 하고 공부를 약속한 기한을 못 채우고 돌아온 아들 앞에서 짜던 베를 찢는다. 피나는 노력으로 가르친 아들들은 학사가 되고 병사가 되어 그 은공에 보답한다. 모성애와 교육열의 친연성은 이주 여성들에게도 이미 준비되어 있다.

> "애기가 태어나기 전에는 베트남의 가족들이 보고 싶은 마음에 당장이라도 베트남에 가족들에게 가고 싶었는데 애기가 태어나서 나보다 애기를 더 생각하고 외로운 마음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애기한테 더 많은 걸 가르치고 싶은 마음에 공부도 더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한국살이」[26]

남의 나라에 온지 이제 1년 4개월, 그저 고향과 살던 집이 그리운 21살의 어린 새댁이지만 이제 어머니가 되고 나니 오직 한마음은 자식-아들뿐이고, 자식을 향한 애정의 발로는 벌써 애기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치고 싶다는 본능에 가까운 교육열이다. 여성들의 타고난 모성애는 자신이 낳은 자식만이 아니라 기른 자식에게도 한결 같다.

> "영조 때 양반인 윤병계(尹屛溪)는 후실이 낳은 사람이다. 그 어머니가 후처로 시집와서 죽은 전처의 자식을 잘 키웠는데 열한살을 먹은 아이가 차츰 몸이 조그라드는 병에 걸려 미구에는 버선목 속에 들어갈 만큼 줄어들었다. 용한 의원에게 물으니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그 위원의 꿈에 도사가 나타나 인골질(引骨疾)이라는 병명을 일러 주었다. 의원이 시키는 대로 아이를 데리고 길을 떠나 어린애 있는 집을 돌아다니며 몇 달을 젖을 얻어 먹이니 아이가 다시크기 시작하여 원상회복이 되었다. 집에 돌아가니 사당문이 열리며 젊은 부인이 하나 나와 절을 하였다. 아이의 생모 즉 전처인데 자기

26) 필자 2008. 262면 표 1-9, 21살 부이탄투이 (베트남)/1년 4개월.

www.kci.go.kr

아이를 살려준 은혜를 갚으려고 옥황상제께 고하여 상제가 워낙은 소생이 없는 후취이게 아들을 하나 점지했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윤병계이다. 「윤병계의 출생담」[27]

모생애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정서이며 남이 낳은 자식을 보살피는 마음은 평범함을 넘어서는 고귀함이다. 전실 자식을 사랑한 계모의 이야기에는 자신이 낳은 아이를 실수로 죽게 만든 전실 자식의 과오를 남편도 모르게 덮어주고, 전실 자식을 훌륭하게 키운 인물전설이 많이 있다. 극단적인 사건 전개이지만 일화로 전승되고 있는 양상을 보아서는 사실담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남이 낳은 아이, 내가 기른 아이의 대한 애정은 책임감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자발적이고 헌신적이다. 앞에서 예로 든 민담이 우리와는 거리가 멀게도 느껴지지만, 현실의 세계에서 이주 여성이 처음 만난 전실 소생에게 보이는 애정을 보면 전혀 남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남편과의 만남에서 미리 자신에게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온 이주 여성의 글을 본다.

"저에게는 딸아이가 3명이 있습니다. 둘째 아기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공항에서 처음 만난 둘째 아이는 '엄마' 하고 소리치며 내게 달려왔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워 준비했던 말들을 그 숭간에 다 잊어 버렸고 괜히 뽀뽀해 주면서 안아줬다. 우리가 한참동안 그렇게 서로 껴안고 있었죠. 마음 갈아앉히고 '보고 싶었다' 라고 말을 해 줬는데 왠지 목이 메고 눈물이 날 번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는 둘째딸이 생겼지요.

너무나 밝고 명령한 아이였다. 드라마에서 많이 보던 무서운 시어머니들하고 큰 다름이 없는 그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기 시작했고 처음엔 많이

27) [대계] 설화분류표 411-16 전실 자식 잘 돌본 착한 계모.
4-3 149 윤병계의 출생담.

www.kci.go.kr

낯설고 어려울 때가 많았지만 너무나 예쁘고 착하고 정이 많은 딸아이 때문에 웃는 날도 많았죠.... 아이는 김밖에 안먹고 놀이터 기구도 타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벌써 잘 타는 걸 무섭다고 울었을 때 이 아이에게 엄마의 빈자리가 얼마나 컸던걸 그 때 느꼈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4개월 때는 엄마는 도망갔다고 남편한테 듣고, 그 엄마의 자리에 이제 내가 서 있기에 아프로 그 엄마가 해주지 못할 걸 다 해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놀이터 가면 안돼, 옷 버릴라'라고 경고를 주셨지만 저는 아이를 데리고 매일 놀이터에서 놀았습니다. 놀면서 한국말도 금방 늘고, 아이는 저에게 한국어 선생님이 돼주고 저는 아이한테 수학, 글자 가르쳐 줬죠.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응원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생각에 힘이 생겼었죠.

이제 많이 건강해졌지만 편식하는 건 여전히 입습니다. 꼴고로 먹고 더 건강했으면 하는 바람뿐인데, 언제나 힘이 돼주는 내 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엄마가 너를 지켜줄 수 있을 때까지 지켜 줄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28]

여성이 가진 무릇 생명 있는 것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약한 자에게 주는 따뜻한 애정이 배어나고 있다. 바얀토야는 자신을 던져서 더 큰 행복을 얻었다. 이주 여성들은 한국에 와서 아이를 얻고 어머니가 된 후에 친정에서 자라면서 갈등했던 자신의 부모와 진정으로 화해한다.[29] 사랑을 줌으로서 사랑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주 여성들에게 한국의 어머니들이 자식을 어떻게 사랑했고 특히 자식의 가르침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열어 간 족적을 보여줌으로써 이주 여성이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아갈 좌표를 보여주는 것이다. 어미와 자식으로 다시 어미

28) 필자, 2008. 3-2「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바안토야(푸른시민연대).
29) 필자, 2008. 1-9「한국살이」21살/부이탄투이(베트남) 1년 4개월.

www.kci.go.kr

로 만나는 그 지점에 이주 여성이, 아니 여성이 자신의 삶을 올곧게 세우는 목표점이 될 것이다. 그간의 이주 여성을 위한 연구가 주로 갓 한국에 정착한 새내기 며느리에 초점을 맞추었기에 이제는 연륜으로 보아 그녀들을 어머니의 위치에 세우고 그 자리에 걸맞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그 글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겠다.

3. 설화 전승의 의의와 전망

"엣 것과 새로움" 고전을 전공하고 여성인 필자는 옛날과 지금의 차이를 말할라치면 인류가 살고 있는 형태는 그 겉옷만 갈아입을 뿐 내용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보는 편이다. 너무 보수적일까? 그래서 우리의 옛 이야기를 현대를 살아가야 하는 이주 여성의 삶과 연관 짓는데 큰 당착을 느끼지 못한다. 그런데 바꾸어 말한다면 이주 여성들에게 우리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신화, 전설 보다는 주로 민담을 자료로 삼았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 「선녀와 나무꾼」, 「우렁 각시」 같은 설화는 그 근원에 신화적 요소를 내재하고 있어서 그 유형이 가진 다층적인 의미망을 들여다 보면 실재 생활과 연결된 지침으로서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생각이다. 더 들어가면 「선녀와 나무꾼」 설화의 기본 유형에는 '어머니'가 없다. 즉 신화가 전설을 거쳐 민담화되어진 변이 유형에 '어머니'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고부간의 갈등을 직설적으로 풀어 나가는 민담을 선정하는 편이 훨씬 유용하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선녀와 나무꾼' 설화는 권력관계로 파악하면 이주 여성과 한국인 남편의 관계와는 다르다. 시대가 변하고 가치관도 다른데 정치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이주 여성들에게 들려준다는 것은 이주 여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이

www.kci.go.kr

아니냐 하는 우려가 들 수도 있겠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이주 여성이 자신에게 당면한 현실을 되도록 빨리 인식하고 스스로의 능력과 각오를 갖추는 편이 긴 장래를 사는데 더 유리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출발점에서 이미 약자인데 계속 의존하면 결국에는 불행해 질 수 있다. 신세대 한국 여성이 올바른 결혼관과 자기 역할에 대한 각오도 없이 결혼에 뛰어들어 낭패를 보는 수가 많이 있다고 해서 이주 여성들도 그 본을 받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먼저 양보하면 나중에는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주 여성들에게 설화를 전승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차츰 설계해 나아가야 하겠다.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에 다문화센터가 있어서 그 쪽 일에 관계하면서 이주 여성들과 접촉하였다. 여러 나라에서 온 다양한 세대의 이주 여성들을 만나 보았는데 그 중에서도 사십대의 재중 동포 출신 여성과 몽고 출신 여성을 특히 눈여겨 보았다. 그녀들은 한국에 온 지 십년 가까이 되는 사람들로 사회에 나와 출신지 언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늦게 온 이주 여성들과 상담도 하고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다. 필자의 복안으로는 먼저 이주의 역사가 오래되고 한국어에 능통한 그녀들에게 한국 민담을 들려주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녀들을 통해 다양한 지역으로부터 이주해온 여성들에게 윗글에서 보여준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설화를 전승해 보려고 한다. 설화가 가지고 있는 강한 생명력이 분명 이주 여성들에게 한국인의 생활 문화와 인간 관계, 가족 관계를 이해하게 하는 데 좋은 지침이 될 것이다. 나아가 이주 여성들이 자기 아이들에게 전래 동화를 읽어 주는 일을 통해서도 자신이 듣고 이해한 이야기들을 전승할 수 있다면 구비 문학의 미래적 확대를 위해서도 좋은 개척점이 될 것이다.

www.kci.go.kr

참고문헌

자료

서대석 편『구비문학』한국문학총서 3 해냄 1997

서정오『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옛이야기 백가지』현암사 1998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구비문학대계』82권 1989

논저

특집논문 기획주제 ; 구비문학 속의 다문화 현상『구비문학연구』제26집 2008.

최원오, 구비문학과 다문화주의 1-28면.

임재해,『골계전』설화의 다문화 읽기와 다문화 사회 만들기 29-74면

이영식, 민요 사설에서의 다문화 존재양상-『한국민요대전』을 중심으로 75-100면.

김현주, 판소리의 다문화적 성격과 문화연변 101-130면.

박진태, 민속극의 놀이꾼과 구경꾼의 관계를 통해 본 문화융합 131-156면.

강정원, 다문화시대의 구비문학 연구, 157-184면.

김나영,「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사회적 지위와 사회참여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석사논문, 2007.

김대숙,「여성의 삶과 구비문학」서대석 외,『한국인의 삶과 구비문학』집문당 2002. 77-92면.

김대숙,「구비 효행설화의 거시적 조망」『구비문학연구』제3집 177-202 면

김대숙,「한국구비문학대계 여성제보자 구연설화에 관한 통계적 연구」『한국고전연구』제9집 2002. 226-249 면

김대숙,「결혼 이주 여성의 자기체험서사에 관한 연구」,『국어국문학』149호, 2008, 260-287면.

김대숙,「다문화가정 여성과 설화교육」『논문집』제25집, 평택대학교, 2011, 71-83면.

김대숙,「문헌설화 소재 열과 애정의 주체로서의 여성」『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제3집, 2001, 39-70면.

나수호,「외국인이 보는 한국 구비문학」『구비문학연구』제27집, 2008, 147-176면.

신란희,「국제결혼 여성의 가족, 일 그리고 정체성 ; 우즈베키스탄과 필리핀 여성의 생애사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5.

오정미,「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설화의 활용 - 설화 <선녀와 나무꾼>과 <우렁각

www.kci.go.kr

시>를 중심으로」『구비문학연구』 제27집 2008, 177-208면.
오정미,「설화에 대한 다문화적 접근과 문화교육-며느리 설화를 중심으로-」건국대학교 박사논문, 2012년.
이성희,「설화를 통한 한국어문화 교육 방안」『한국어교육』 10-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999. 257-271면.
정병헌,「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학 교육의 현황과 개선 방향」『어문교육』 44집 어문교육학회, 2004, 327-350면.

www.kci.go.kr

ABSTRACT

A study of Folktales for married female immigrants

Kim, Dae-Sook

It has been more than twenty years since interracially married female immigrants started to be noticed in Korea. Now it is no longer possible to stick to the image of an immigrant woman merely as a "bride" who got just married and needs to learn the new Korean culture which she has not been accustomed to yet and all the new roles which she as a bride is required to follow. In this light, this paper introduces folktales to those immigrants as Korean culture particularly related to the role of 'mother' in Korean family has been deeply embedded in folktales. Through the introduction, the paper helps the immigrant women understand and be familiarized with the Korean culture and the Korean family relationship. Female immigrants who married Korean men are able to build their life plan in a more independent way once they have financial capability. Also, folktales help such immigrants learn how Korean women have worked and struggled to survive in a Korean traditional society. This learning process is of importance as it may make them and their family have a satisfactory life. In addition, folktales will be passed from one generation to another as immigrant women with high Korean competence will pass what they have been told to their descendants.

Key Words folktale transmission, married female immgrants, family relationship, financial capability

논문투고일 : 2012. 04. 02
심사완료일 : 2012. 06. 04
게재확정일 : 2012. 06. 05

www.kci.go.kr

www.kci.go.kr